



2018년 7월 8일(제883호) 연중 제1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약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단점이나 약점은 곧 이 사회에서 뒤쳐질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보다는 장점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단점이나 약점을 감추려고 많은 것들로 포장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과대 포장하거나 부풀려 보이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 받지 않고, 더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속은 없고 포장만 휘황찬란한 선물 상자와 같이, 내용물보다는 질소가스가 많이 주입된 과자와 같이 자신을 부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지가 벗겨지면, 과자 봉지가 뜯어지면 곧 실망하게 되는 것처럼 포장된 삶, 과장된 삶이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찢리는 아픔이 곧 자기 자신이 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한 하느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자신의 나약한 점, 아픈 점을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나약한 점, 약점마저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힘이 자신 안에 머무를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초인간적인 힘, 강력한 신적인 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나약함, 부족함을 가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람으로서의 부족함과 나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힘과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나약함이 곧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임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나약함을 통해 자신들만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나약함을 통해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웃들에게서 보여지는 나약한 점, 부족한 점을 나 자신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들의 부족함 속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이리저리 채고 따지고 판단하며 단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전환상(새레지요회) 신부
중령 103위 상인(육군 37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예제 2,2-5

회 답 송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제 2 독 시

2코린 12,7ㄴ-10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마르 6,1-6

영 성 제 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강이 시몬



성인명: 김강이 시몬 (金鋼伊 Simon)

신분: 중인, 순교자

활동연도: 1765?-1815년

‘여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강이(金鋼伊) 시몬은 충청도 서산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장성한 뒤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성격이 고상하고 용맹한 데다가 재산도 많았다. 그러나 입교한 뒤에는 재산과 종들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아우인 김창귀 타대오의 가족과 함께 전라도 고산 땅에 가서 살았다.

1795년 초여름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고산을 방문하자, 김 시몬은 여러 차례 신부의 처소로 가서 성사를 받고 교리를 배웠다. 또 1801년 신유박해 때에는 지도층 신자로 지목되어 1년 동안을 피신해 다녀야만 하였다. 이때 그의 아내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끝에 많은 돈을 쓰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박해가 끝난 뒤 김 시몬은, 등짐장사를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장사를 그만두고 경상도 진보의 머루산(현, 경북 영양군 석포면 포산리)으로 들어가 교우촌을 일구었다. 이후에도 그는 다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강원도 울진(현, 경북 울진군)에 가서 정착하였다.

경상도에서 1815년에 을해박해가 일어난 뒤, 김 시몬은 옛 하인의 밀고로 아우인 김창귀 타대오와 조카 김사건 안드레아와 함께 체포되어 경상도 안동에 수감되었다. 이때 김 시몬은 용감하게 관장 앞으로 나아가 포졸들이 빼앗은 자신의 재물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그의 요청을 순순히 들어주었다. 보기 드문 일이었다. 김 시몬은 다시 찾은 재물을 굶주리고 있는 옥중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김 시몬은 안동에서 여러 차례 문초를 받았지만 깨끗하게 신앙을 지켰다. 그리고 그해 5월에는 아우와 함께 자신이 살던 강원도의 수부(首府)인 원주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도 다시 문초와 형벌은 이어졌고, 그러면서 그의 아우는 마음이 약해져 배교하고, 유배형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김 시몬은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았다.

김 시몬이 보여준 열렬한 신앙과 인내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러자 감사는 결코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형을 선고한 뒤, 임금의 윤허를 받고자 그 내용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때 원주 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김강이는 비밀리에 신자들에게 천주교 서적과 소식을 전해 왔으며, 여러 해 동안 천주교 교리를 외우고 익혀서 온몸으로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벌를을 시행토록 허락해 주십시오.”

임금은 곧바로 사형 집행을 윤허하였다. 그때 김강이 시몬은 이미 형벌의 상처가 아주 심한 데다가 옥중 생활에서 얻은 이질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 결과 김 시몬은 임금의 윤허가 내려오기도 전에 옥사하고 말았으니, 그때가 1815년 12월 5일(음력 11월 5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 이상이었다.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중간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그 미묘한
중간을 걸으며

善·惡
누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만은

그 미묘한
중간을 걸으며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상화이야기

메디치 경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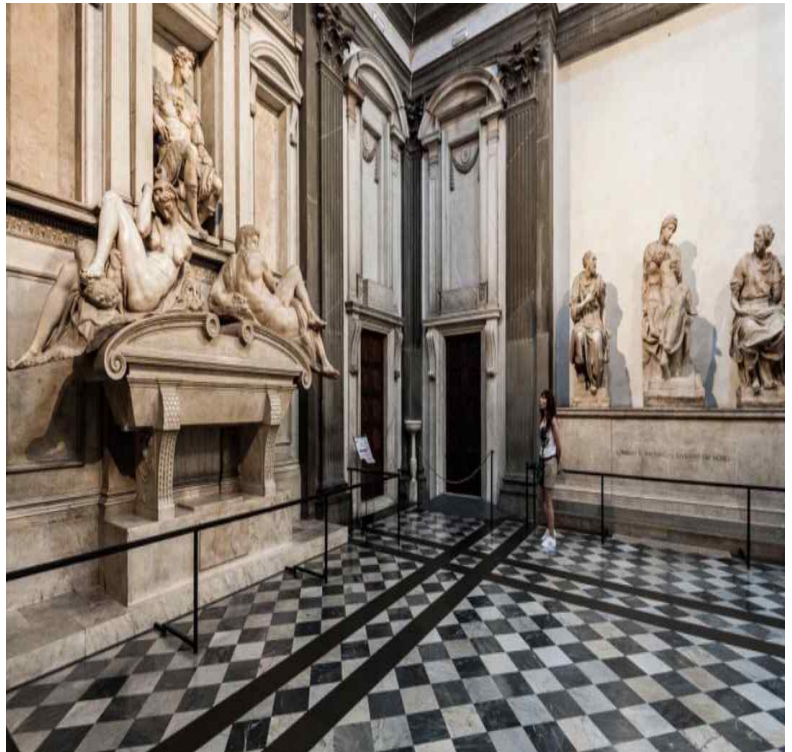


그렇다면, 줄리아노와 로렌조가 그토록 열심히 바라보는 곳은 어디인가?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바로 성모님과 예수님, 그리고 이를 보위하는 메디치를 수호하는 두 성인이다.

어머님의 품을 파고드는 아기 예수님과, 다소 처연한 성모님의 표정, 의자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성모님의 자세 등이 합쳐져, 이 조각상은 애잔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느낌을 준다.

메디치 가문 일원의 무덤인 이곳은 결국 낮과 밤, 황혼과 여명을 통해 보현된 영원과 찰나, 시간의 개념 속에서의 인간이 결국 성모님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개념을 조각하여 건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4주일 : 회랑 김영송 신부

◆ 교구장 동정

- 전진(1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7월 8일(주일)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